구멍/ 임유경

남자가 자신의 방에 이상( 異 常 )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실제로 남자는 그것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고, 인식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남자가 이상을 감지한 것이 아니라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새카맣고, 작고,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구멍이었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책장 아래 생긴 구멍은 아무리 자세히 관찰해도 낯설기만 했다. 전에 없던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일까. 도둑이 남긴 실수? 아, 누군가 창문 밖에서 던진 무거운 물체에 구멍이 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남자는 쉼 없이 구멍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머리를 굴렸다. 그러나 모든것이 무색하게도 도둑은 들지 않았고, 창문도 금간 곳 하나 없이 멀쩡했다.

남자는 쪼그리고 앉아 아주 불편하게 고개를 숙였다. 막연하게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다. 구멍에 고정된 시선은 움직일 줄을 모른다. 남자는 머릿속을 떠돌던 수많은 의문들과 생각들이 점점 지워지는 것을 느꼈다. 불편한 몸과는 다르게 이유 모를 안정감을 느꼈다.

꼼짝없이 바라보는 구멍의 어둠에 남자는 점점 더 빠져 들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 없는 어둠에 매료된 것이다. 그렇게 하염없이 바라보는 사이

손톱 만했던 구멍은 점점 몸집을 키웠다.

남자가 그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해가 수평선 뒤로 넘어갈 때쯤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구멍의 크기가 달라진 것을 알아차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꿈틀대는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이다. 인간의 피부색과 유사하지만 파충류나 어류의 느낌이었다. 어떠한 점액으로 범벅이 된 그것은 손바닥만큼 커진 구멍 안에서 등을 꿈틀거렸다. 마치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나온 고래의 모습 같았다.

남자는 순간 정신이 깨어나며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발가락부터 손가락 끝까지 소름이 돋았다. 저건 또 뭘까. 살아 있는 생명체일까? 차라리 죽어 있는 것이면, 아니, 삶과 죽음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것이었으면 좋을 텐데. 기대와는 다르게 꿈틀대는 것은 강한 생명력을 내뿜고 있었다. 불쾌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참기 힘든 구토감이 몰려왔다.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눈을 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구멍은 이미 남자를 지배했다.

남자는 갈등한다. 아직까지도 불규칙적으로 꿈틀대는 이것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다는 호기심과 절대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두 가지 욕구가 대립했다. 여기서 모르는 척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면 분명 정상적인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 구멍을 찾을 거다. 꿈틀거리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야 말 거다. 그러나 지금 그걸 보게 된다면....

남자는 우선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기로 한다. 책장에서 책을 한 장 꺼내 귀퉁이를 찢었다. 그리고 꿈틀대는 것이 다시 등을 보이길 기다렸다가, 어둠 위로 올라온 순간 종이를 구멍에 넣었다. 남자는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한다. 종이에 닿은 그 꿈틀대는 것이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사납게 몸을 꿈틀거렸기 때문이다. 남자는 비명을 들었다. 괴로운 듯한 고통이 남자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다.

그러나 남자는 멈출 수가 없었다. 꿈틀대는 것의 전신을 보고 싶었다. 그의 온몸엔 보고야 말겠다는 집념이 자리 잡았다. 지금이 몇 시인지, 밥은 먹었는지, 내일은 무엇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심지어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조차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한 가지 생각이 그를

집어 삼켰다. 손을 넣어 보자.

구멍은 이미 성인 남자의 손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커져 있었다. 남자는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다. 이성적인 사고는 꿈틀대는 것과 알 수 없는 구멍에 밀려났다. 남자는 어둠 속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 꿈틀대는 그것은 분명 미끄럽고 차가울 것이다. 그 감각만 찾을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묘한 쾌감과 성취 욕구가 치솟았다. 꿈틀대는 그것을 잡아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 바늘로 찔러보거나 소금을 뿌려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자는 구멍 안에서 집요하게 손을 휘휘 저었고,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남자는 구멍 안으로 점점 더 깊숙하게 몸을 넣었다. 이마를 타고 땀방울이 흐르고, 숨이 가빠졌다. 아주 차갑고 미끄러운 그것은 남자를 놀리듯이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참의 씨름 후 남자가 포기하기로 마음먹을 때쯤,

손에 기대했던 차갑고 미끄러운 촉감이 걸렸고, 구멍은 남자를 삼킬 것처럼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작가의 말

사람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는 괴물이 산다. 우리와 같은 피부색과 질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선과 악이 없으며 인격이 없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무지가 아닌 말 그대로 최초의 상태일 것이다. 아주 불쾌하고 꺼림칙한 이 괴물은 유혹적이기까지 해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한다면 괴물에게 우리 자신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